

	독일 (프랑크푸르트)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시	2025. 6.

CEPA Insight

- 독일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며 방산, 교통 인프라, 반도체·배터리·AI 등 첨단산업, 에너지 전환 산업에 전략적 투자 중으로
- 도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AI, 기후 등 기술 스타트업 진출 기회 모색

① 메르츠 총리, 대의회 연방정부 국정 연설 실시

- 메르츠 총리가 5. 14. 취임 이후 최초로 연방하원에서 국정연설 실시
- 이번 연설을 통해 '번영, 안보, 결속'을 신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로 제시하고, 신정부의 정치적 대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분야별 계획 발표
- (이민) 이민자 관련 노동 시장 및 사회 보장 시스템 합리적 개선, 체류 권한이 없는 외국인의 추방 조치 확대
- (외교)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지 유지 및 독일 자체 방위 강화
- (경제) 세금감면, 기반시설 투자, 관료주의 완화 등 경제 환경 개선
- (노동) 시간당 15유로 최저임금 법제화 미수용, 의료보험제도 개혁

※ 출처 : **Bundesregierung** (<https://www.bundesregierung.de/breg-en/news/first-government-statement-chancellor-merz-2347710>)

② 배터리 기술 특허, 독일과 한국·중국·일본 간 격차 확대

- 독일 특허청(DPMA)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, 2024년 독일 내 배터리 기술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16.6% 증가한 총 7,242건에 달함
- 이 중 한국이 1,817건(10.3%↑)으로 1위, 중국 1,591건(22.6%↑), 일본 1,136건(7.8%↑), 독일 1,112건(1.9%↑) 순
-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LG, CATL, 삼성 등 아시아 기업이 출원 주도
- 반면, 독일은 태양광 기술 분야에서 전년 대비 57.3% 증가한 184건을 등록하여 중국을 제치고 1위 기록

※ 출처 : **Sueddeutsche** (<https://www.sueddeutsche.de/wirtschaft/innovationen-patentanmeldungen-asien-bei-batterietechnik-weit-vorn-dpa.urn-newsml-dpa-com-20090101-250522-930-575461>)

③ 독일 방산업계, 사상 최대 수주 기록

-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2025년 1분기에 전년 대비 181% 증가한 110억 유로 규모의 수주를 달성, 수주 잔고 또한 626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 기록
 - 크라우스-마페이 벡만(Krauss-Maffei Wegmann)과 프랑스의 넥스터(Nexter)의 합병기업인 KNDS 또한 최근 수주 잔고가 235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
 - 티센크루프 해양시스템(TKMS)은 자사 역사상 최대의 잠수함 수주를 확보하면서 160억 유로 이상의 수주 잔고를 달성
- 이러한 수주 호황은 주로 '프레임워크 계약' 덕분으로, 현재 전 세계 프레임워크 계약의 90% 이상이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음.
 - * 확정된 발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발주로 이어지는 사전 계약 형태

※ 출처 : **Faz** (<https://www.faz.net/aktuell/wirtschaft/unternehmen/die-ruestungsindustrie-kann-sich-vor-auftraegen-nicht-retten-110467178.html>)

④ 독일 연방정부, 빅테크기업에 디지털 세금 부과 계획

- 바이머(Wolfram Weimer) 연방정부 문화미디어특임관은 오스트리아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 부과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
 - 상기 조치는 Google Ads뿐만 아니라 수십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모든 플랫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, 해당 기업들에 대한 10% 세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
- ※ 오스트리아는 2020년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수익의 5%를 세금으로 징수
- 바이머 특임관은 디지털세는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,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
- 한편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가 미국 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무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 지시

※ 출처 : **Tagesschau**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digitales/steuer-digitalkonzerne-weimer-100.html>)

5 독일 전기차 할인 확대로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 좁혀

-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독일 전기차 평균 할인율은 16.7%로 전월 대비 1.8%p 상승했으며, 1월 이후 총 3%p 증가
 -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,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종료 이후 가장 격차가 적어짐
 - 독일 내 전기차 판매는 이미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, 올해 3월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동월 대비 35.5% 증가
- 자동차 업계 전문가 페르디난트 두덴회퍼(Ferdinand Dudenhoeffer)는 제조사들이 EU의 CO₂배출 규제로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,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큰 폭의 할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한편, 경영컨설팅사 맥킨지의 설문조사 결과, 독일 내 응답자 중 30%는 차기 차량 구매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응답(전년 대비 7%p ↑)

※ 출처 : **Spiegel**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e-autos-hersteller-raeumen-hoehere-rabatte-ein-a-a5473484-40e6-4418-9f1e-bd58c4f4b9ea>)

6 스타트업 FMC, 독일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

- 독일 드레스덴 기반 스타트업 FMC(Ferroelectric Memory Company)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, 현재 막데부르크, 피르나, 오더강변 프랑크부르트 지역을 부지 후보로 검토 중
 - FMC는 자사 칩이 기존 반도체칩보다 전력 소비는 1,000배 적고, 속도는 1,000배 빠르며, 비용은 10배 저렴하다고 홍보 중
 - FMC가 반도체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되면 유럽의 해외 의존도 감소 뿐만 아니라, 독일의 반도체 기술 중심지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FMC는 공장 설립을 위해 13억 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요구
 - 연방정부의 칩 보조금 예산 20억 유로를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20개나 있어 정부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

※ 출처 : **Handelsblatt**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deutschland/halbleiter-europaweit-einzigartige-chipfabrik-koennte-in-deutschland-entstehen/100128599.html>)